



현진스님의 산방한담

무구(無求)면 무고(無苦)이다

어제는 멀리서 손님이 다녀갔다. 한동안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연락이 닿아서 여기를 찾아왔다. 그의 곁에는 중년 이후에 만난 부인이 있었는데 무척 다정해 보였다. 인생을 살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행복의 과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부부는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길 염원하며 기도 올렸다고 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행복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학자 고(故) 김동화 박사는 평소 “유구(有求)면 유고(有苦)이고, 무구(無求)면 무고(無苦)이다”는 말씀을 자주 언급했다. 이 뜻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는 명언이다.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 소유하는 것에 비례하여 괴로움의 부피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이 많으면 행복이 줄어들고, 욕심이 적어지면 행복이 늘어나는 이치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만족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서 세계인들의 축제를 구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메달 수여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흥미 있는 현상이 있다. 나도 매번 관심 있게 보았던 일이다.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기뻐하지만 대체로 은메달 선수는 크게 웃지 않았다. 그것은 금메달 도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는 자책 심리가 은메달에 대한 기쁨을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은메달 선수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와 달리 동메달 선수가 가장 행복했다. 그것은 동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순위권에서 떨어졌다면 그 동메달은 다른 선수에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는 금메달의 행복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은메달 선수는 목표를 위로 구했기 때문에 덜 행복했지만, 동메달 선수는 목표를 아래로 구했기 때문에 더 행복했다. 따라서 크게 바라면 크게 괴롭지만 조금 바라면 조금 괴로운 것이다. 이 논리를 정리한 것이 ‘무구(無求) 행복론’이다. 결국 큰 욕심 없는 마음이 행복의 길이다.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

청주 마야사 주지



‘2017 만해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리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만해평화대상 수상자 ‘하얀 헬멧(시리아 구호단체)’ 대표 라에드 알 살레.

“만해는 인류애, 우리는 ‘들것’을 택했습니다”

시리아 구호단체 ‘하얀 헬멧’ 제21회 만해 평화대상 수상

침팬지 학자 제인 구달 실천 최동호·클레어 유 문예대상

“시리아 내전을 겪으며 이웃과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총을 들거나 난민이 돼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국제구호단체들까지 철수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 ‘하얀 헬멧’ 대원들은 그 두 가지가 아닌 ‘들것’을 택했습니다. 위대한 시인이며 민족운동가였던 만해가 민족의 암흑기에도 인류애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만해평화대상 수상자 시리아 구호단체 ‘하얀 헬멧’)

불교 사상가이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만해스님(한용운, 1879~1944)을 기리는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인제 하늘내리센터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동국대·강원도·인제군·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열렸다. 올해 만해 평화대상 수상자는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지난 3년간 8만여 명의 생명을 구한 구호단체 ‘하얀 헬멧’. 실천대상은 세계적

침팬지 학자이자 환경 및 동물 운동가, 유엔 평화대사인 제인 구달, 문예대상은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와 클레어 유(한국명 임정빈) 미국 UC버클리 한국학센터 상임 고문 등이 받았다. 상금은 부문별 1억원이다.

‘하얀 헬멧’ 대표 라에드 알 살레는 수상 소감에서 만해스님의 인류애를 언급하며 ‘희망’을 이야기 했다. 전쟁 전까지 전자제품 판매장이었던 라에드 알 살레는 “지난 6년 동안 전쟁 속에 살았다. 지금까지도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고 있다”며 “만해가 인류애와 영적노력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승자도, 영광도 없는 전쟁 속에서 ‘들것’ 하나로 평화와 희망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얀 헬멧’은 2012년부터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해왔다. 구조 현장에서 하얀 안전모를 착용해 세계 언론과 국제구호단체 사이에서 ‘하얀 헬멧’이라 불린다. 단체 공식 이름은 ‘알디파야 알파다나 알수리(시리아 민방위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를 모토로 약 3000명의 교사, 제빵사, 정소부 등이 활동한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분업을 제쳐두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2016년 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에 올랐으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하얀 헬멧이 희망 없는 시리아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종헌유린 엄중책임 묻겠다”

선관위 ‘선거법 소각 행위’ 경고

지난 10일 ‘보신각 촛불집회’에 동참했던 일부 스님들이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단 ‘선거법’을 불태우는 장면을 연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

원장 종훈스님이 입장을 내고 “선거법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종헌종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종헌종법을 수호해야 할 종회의원을 지내는 등 종단 지도부로 있었던 스님들을 포함한 이들 대중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범을 이토록 쉽게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종헌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제인 구달은 이날 인제군을 “아직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큰 스승 만해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제인 구달은 “자연 없이 우리 인간 또한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생명은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신 만해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을 전하기 위한 일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 공동 수상자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40년 이상 한국현대사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으며, 클레어 유 미국 UC버클리 한국학센터 상임 고문은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과 확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만해축전 총재)은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스스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사바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분들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시대 보살이기도 하다”고 축원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만해축전 명예대회장)은 수상자들의 이력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자기 희생에 따르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인류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a.com

종법에 따라 종단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선거법을 근거로 공명선거 실현 및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며 엄중한 책임감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법을 훼손한 행위에 동참한 승려들과 재가자들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각 부처님과 전 종도들 앞에 엎드려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a.com

충분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교를 위한 조계종충분산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 명단

(2017년 7월26일~2017년 8월8일)

□기금 : △양양 낙산사(주지 도후스님) 5000만원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5000만원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스님) 3000원 △강화 보문사(주지 정문스님) 2000만원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효광스님) 2000만원 △부산혜원정사(주지 효명스님) 1000만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정묵스님) 400만원 △양양 낙산사 흥련암(회주 금곡스님) 300만원 △서울 삼천사(회주 성운스님) 277만7800원 △서울 흥천사(주지 정관스님) 50만원 △강필순 10만원 △김봉옥 10만원 △김해숙 10만원 △박수철 10만원 △부산장금선원(주지 원어스님) 10만원 △전단향 10만원 △서울 감로사(주지 현수스님) 5만원 △김상기 5만원 △김영주 5만원 △서울 미아봉은사 5만원 △박정규 5만원 △이병찬 5만원 △전현우 5만원 △서울 3만원 △강태원·강태은 2만원 △나향란 2만원 △박선숙 2만원 △백준자 2만원 △오병영 2만원 △유정희 2만원 △전준호 2만원 △김미애 1만원 △김연우 1만원 △최철순 1만원 △이미숙 7000원 △이순자 5000원 △평화유지 5000원 △최서진 3000원. (총 1억9144만78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교도소 수감자 영치금 아껴 충분산성역화 불사에 동참

조계종충분산성역화 불사에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산의 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가 영치금을 아껴 불사 후원금으로 기탁해 눈길을 끈다. 성역화 불사 추진위에 따르면, 박희명(가명) 씨는 지난날 초 교도관에게 부탁해 후원금 10만원을 입금했다. 추진위는 이 수감자가 신문 등을 보고 불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불교신문을 범죄시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에 사는 신심 깊은 불자 하명희 씨도 지난 7월 초 신문에 난 사고를 보고 10만원을 후원했다. 소액이지만 모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후원에 동참한 불자도 있다. 이미숙 씨는 2016년 5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적게는 1100원부터 9500원까지 매번 다른 금액을 입금하며 성역화 불사를 응원하고 있다. 성역화 불사 추진위는 “본인과 자녀 이름으로 꾸준히 동참하고 있는 보살님, 교도소에서 영치금으로 동참한 거사님, 평소 범죄시를 꾸준히 하며 동참한 신심 깊은 보살님 등 성역화불사가 원만 회향하기를 발원하며 많은 분들이 모연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불자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a.com



벽걸이달력

| 대 305×307, 소 255×260mm |

- 사찰풍경, 동자승(사조), 연꽃
- 산문(일주문), 담장, 자연풍경
- 전통문화, 마애불
- 선화, 동자승(그림), 유화
- 선사화(반야심경), 카툰, 캘리

탁상달력

| 250×170mm |

- 내 마음 속 꽃피 내리는 날
- 사찰, 그 곳의 담장
- 자연 속의 풍경

수첩달력

| 96×135mm |

- 전통문화(사건다지달아키리)
- 다워니 발원이 귀명래 삼보
- 마음을 올리는 행복한 말씀

미니달력

| 96×108mm |

- 발길 닿는 곳, 산사
- 연꽃의 노래
- 꾸러기 동자승의 미소(그림)
- 산문에 서다(일주문)
- 님의 미소, 마애불

불기2562(2018)년도 달력주문하세요!!

(주)도반HC에서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주)도반HC달력 조기주문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기성달력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할인가간 : 현재부터 ~ 9월 30일까지
- 할인조건 : 기간 내 달력 주문 및 달력하단 디자인을 최종완료한 사찰
- 할인금액 : 달력금액의 10%DC (독판달력 제외)

(주)도반HC의 달력은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주)도반HC에서 판매하는 달력은 매년 타업체와는 차별화 된 새로운 이미지를 사용하며, 사찰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원·부자재도 국내 최고 품질의 자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달력용지: 한국제지 정품 사용]

(주)도반HC달력을 주문하시면 불교용품 “서피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종류종택)

| 서비스용품 | 1.봉축소책자(2018년) 2.편지봉투 3.시주봉투 4.축원카드

※서비스용품은 사찰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오니 달력 주문시 꼭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용품은 달력주문량에 따라 일정량 제공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샘플북은 각 사찰에 발송되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www.jogyebook.com>)에서 전자책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맞춤(독판)달력 제작시, 사찰에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달력팀 서울특별시 중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론 230~2호

| 달력문의 | 일반(기성)달력 02)720-0671~73, 77 맞춤(독판)달력 02)720-0669 팩스 02)720-6019

